

대한항공은 최근 3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챔피언결정전 우승은 3위로 볼 배구에 도전했던 2017~2018시즌이었다. 지난 시즌은 다펜딩챔피언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통합우승에는 실패했다. 당연히 이번 시즌 목표도 첫 통합우승이다. 누가 뭐래도 정상권의 탄탄한 전력이다. 이번 시즌 대한항공은 V리그와 한국배구에 새로운 길을 보여줄 시도를 많이 한다. 첫 번째는 역대 최단신 외국인선수 선발이다.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의 비예나는 신장이 194cm다. 배구는 키가 커야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특히 승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선수는 토종선수들보다 키가 커야한다는 것이 V리그의 상식이었다. 박기원 감독은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 구슬 뽑기 후순위였던 대한항공은 단신이지만 탁월한 배구기량과 스피드, 열심히 하려는 비예나의 자세를 높게 평가했다. “다른 팀에 가면 10점대 선수다. 우리 팀에서 한선수와 호흡을 맞추면 20점은 할 것”이라고 감독은 봤다. 광승석~정지석의 안정적인 리시브와 세터 한선수의 빠른 연결능력이라면 키가 크지 않더라도 해볼만하다는 판단이었다.

단신 외인·13명 소수정예 ‘박기원의 실험’

(대한항공 감독)

194cm 역대 최단신 외인선수 비예나
순천 KOVO컵서 MVP·우승 선봉
정지석 등 FA선수 잔류 조직력 굿
유광우 영입, 세터 한선수 부담 덜어
소수정예 엔트리 새 패러다임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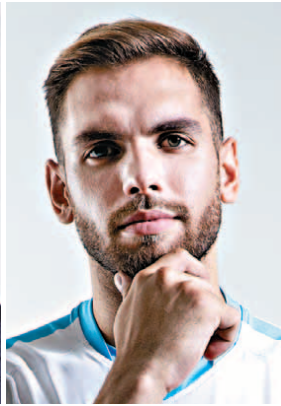
비예나는 국가대표팀 차출 일정 탓에 한선수~광승석~정지석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다. 단 이틀만 맞춰보고 출전했던 순천 KOVO컵에서 보여준 결과는 대단했다. 팀에 우승을 안겼고 자신은 MVP가 됐다. 만족스러웠다. 정확한 서브와 블로킹, 빠른 공격과 배구기술, 뛰어난 운동 센스가 빛났다.

감독은 비예나에게 많은 믿음을 줬다. 훈련태도와 팀에 적응하려는 모습은 만족스럽다. 훈련시작 30분전에 숙소에서 미리 몸을 만드는 준비과정, 동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점, V리그와 대한항공의 팀 문화를 존중하려는 노력 등이 역대로 성공했던 외국인선수의 자세다.

정지석은 “KOVO컵에서 배구하는 것



박기원 감독



비예나



정지석



한선수



광승석

을 처음 봤다. 임동혁이 배우도사라고 했다. 공을 때릴 줄 안다. 우리 팀의 컬러와 맞다”고 실력을 인정했다. 만일 대한항공이 비예나와 이번 시즌 3개의 우승을 모두 차지한다면 다른 팀들도 배우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꼭 높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것이다.

●선수영입 전쟁의 승자는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FA와 선수영입 전쟁의 승자였다. FA선수 정지석~광승석~황승빈~진성태를 모두 잡았다. 은퇴 이후까지 걱정하고 안정된 길을 찾아주려는 구단의 인간적인 배려를 선수들이 잘 받아들었다. 선수들에게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주는 박기원 감독의 존재도, 섭섭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했던 구단의 정책도 효과를 봤다. 2018~2019시즌 MVP 정지석도 일찍 잔류를 선언했다. 덕분에 대한항공은 팀의 장점이던 리시브 라인이 변하지 않았다.

주전세터와 벌써 5년 이상 손발을 맞춰왔다. 귀중한 시간이 만들어준 조직력은 어느 팀보다도 탄탄하다. 톱나바퀴가 연상된다. 여기에 보상선수가 없어 더욱 많은 구단이 탐을 냈던 손현중도 KB손해보험에서 데려왔다. 그의 가세로 기존의 장점에 파괴력과 높이를 추가했다. 대한항공은 우리카드에서 세터 유광우도 데려왔다. 황승빈의 군 입대로 가동할 세터는 사실상 한선수 뿐이었다. 박기원 감독은 비시즌 동안 젊은 세터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성장속도가 느렸다. 세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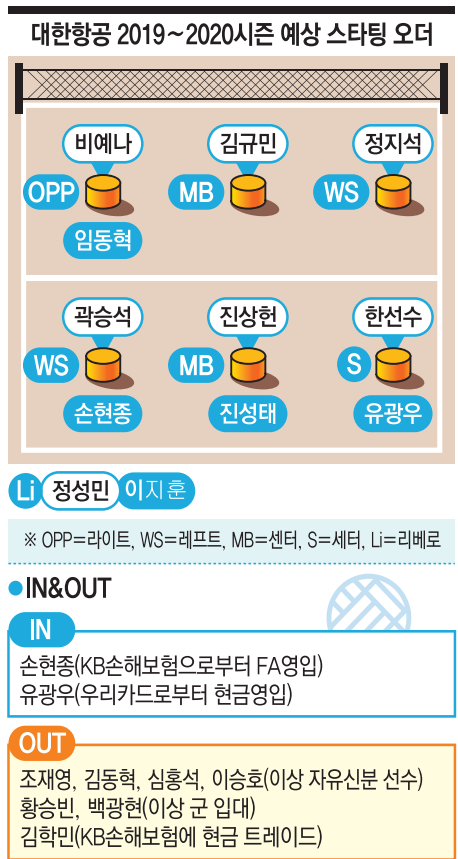
내년 1월 한선수~정지석~광승석 등

이 국가대표팀으로 차출되는 기간동안의 팀 운영을 생각한다면 보강이 절실했다. 고민 끝에 최고의 해법을 찾아냈다. 한국 최고의 세터 2명을 가졌다. 새로운 조합은 여러 면에서 편리했다. 긴 시즌 동안 한선수의 체력안배가 쉬워졌다. 2명 세터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플레이도 가능해졌다. 박기원 감독은 “한선수가 코트에서 경기를 이끌어갈 때 누구보다 머리 회전을 많이 한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상당할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대신해서 들어가 쉬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순천 KOVO컵에서 감독은 한선수와 유광우의 조화로운 사용법을 보여줬다. 디그 능력이 좋은 유광우가 후위에 있을 때 팀은 훨씬 단단해졌다. 단신의 비예나가 후위에 가면 기대주 임동혁을 투입해 백어택의 성공률을 높이는 시스템도 눈에 띄었다. 정지석은 “다른 팀으로 볼 때는 유광우 형이 높은 공만 잘 올려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 팀에 와서 해보니 빠른 연결과 속공을 더 잘한다. 공격하기 편하게 잘 도와줘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시즌의 결과는

빛이 밝으면 그늘도 깊다. 모든 팀이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있다보니 썰리캡이 문제가 됐다.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엔트리 축소 외에는 답이 없었다. 대한항공은 이번 시즌 신인선수를 제외하고 고작 13명의 선수로 36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혹시라도 부상자가 나오면 다른 팀 보다는 충격이 클 위험한 구조다.



“소통을 통해 판정 신뢰 회복” KBL, LG-삼성전 오심 공개

KBL이 결정적인 오심을 먼저 공개하는 등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개막 직후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KBL은 “5일 열린 창원 LG-서울 삼성전 연장전 종료 1분50초전에 진행된 비디오 판독 및 심판 판정이 오심이었음을 알린다. 이와 관련해 KBL 경기본부 규정에 의거해 재할방침이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은 삼성 천기범의 골밑 공격 직후 나왔다. 천기범이 시도한슛은 백보드를 뚫긴 이후 림에 맞았다. 튀어나온 볼을 LG 캐디 라렌이 쳐냈다. 심판들은 비디오판독 후 골텐딩으로 천기범의 득점을 인정했다.

국제농구연맹(FIBA) 경기 규칙에 따르면 림에 맞고 뚫긴 볼은 아무나 건드려도 상관없다. 천기범이 슛한 볼은 백보드를 맞은 뒤 림을 한 차례 튕기기 때문에 라렌의 블로킹은 골텐딩이 아니었다. 오심이었다.

KBL이 먼저 심판의 오심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KBL은 향후에도 사소한 실수가 아닌 결정적인 오심이 나오면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해당 내용을 적극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심판들의 판정 정확도를 높이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다.

최용석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토종들의 대량득점이 반갑구나!…KBL의 긍정적인 변화들



최용석의 팀인

외인 출전 매 쿼터 1인으로 줄자
국내선수들 공격 기여도 높아져
오세근 36점·김낙현 27점 진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가 5일 개막해 이틀간 8경기를 치렀다. 인천 전자랜드와 안양 KGC는 2연승으로 신바람을 냈다. 반면 창원 LG는 2연패에 빠져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팀당 1, 2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경기 내용은 2018~2019 시즌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경기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등 감독들의 예상대로 각 팀의 전력차가 많이 줄었다. 또 외국인선수 출전이 매 쿼터 1명으로 줄어 각 팀마다 국내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개막 직후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

시즌 개막 이전에 하위권으로 지목받은 전주 KOC와 서울 삼성은 경기 내용과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KOC는 5일 홈 개막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서울 SK를 연장전 끝에 잡았다. 하루 뒤에는 원주 DB와의 원정경기에서 높이의 열세를 스피드와 외곽슛으로 만회하



세 시즌 남자 프로농구에는 변화의 기운이 역력하다. 팀간 전력차가 크게 줄었고, 국내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인기회복을 위해선 바람직한 일들이다. 5일 전주서 열린 SK전에서 KCC 김국찬(오른쪽)이 상대 수비를 뚫고 돌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L

며 끝까지 상대를 괴롭혔다. 승리는 DB의 몫이었지만 KOC가 시즌 초반 많이 뛰는 농구로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를 극복해내고 있다. 팀이 확실히 달라졌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5일 LG전에서 연장전까지 펼쳐 승리를 따냈다. 6일에는 상위권 후보인 전자랜드와 원정 경기를 펼쳤다.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막판까지 시소게임을 펼쳤다. 경기 종료 직전 선수의 판단 미스로 자유투를 내준 삼성은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1승 1패로 팬들은 개막 주말을 보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SK(1승1패)와 울산 현대모비스(1패)가 주춤 가운데 전자

랜드와 KGC가 나란히 2승을 챙겼다. 초반 전문가들의 예상은 다소 빗나갔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외국인선수들의 적응, 일부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 일부 부상자들의 복귀 등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팀들의 행보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내선수들의 활약상이다. KGC 오세근은 6일 LG를 상대로 혼자 36점을 몰아쳤다. 전자랜드 김낙현은 같은 날 삼성전에서 24점을 쏟아냈다. 한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양산한 국내선수들은 돌뿐이 아니다. 송교창과 이정현(이상 KCC)은 번갈아 24점씩을 넣었다. 강상재(전자랜드), 김국찬(KCC), 최준용(SK) 등도 한 경기에서 각각 20점을 기록해냈다.

외국인선수 출전이 매 쿼터 1명으로 줄어 들자 국내선수들이 공격에서 팀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외국인선수들이 아직 적응 단계에 있기 때문인지 국내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는 팀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갔다. 국내선수들의 득점 지분이 계속 늘어나면 팬들의 보는 재미는 한층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즌 초반이지만 국내선수들이 공격에서 적극성을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리그에 불려라가 더 풍성해질 전망이다.

스포츠부 기자 ghyong@donga.com